

## 봉산서원(蓬山書院)



-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서원마을
- 배향인물: 백인걸(白仁傑)
- 창건연도: 1590년(선조 23)
- 사액연도: 1667년(현종 8)
- 향사일: 음력 2월 15일

### ■ 연 혁

봉산서원은 1541년(중종 36) 남평현감으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고 후학을 양성하며 유풍(儒風)을 진작시켰던 휴암 백인걸(休庵 白仁傑)을 제향하는 서원이다.

백인걸의 학덕과 지적을 흠모해 오던 이 지역의 사림과 관리, 백성들은 힘을 합쳐 1590년(선조 23) 사당을 건립하였다. 이때의 건립사실에 대하여는 《열읍원우사적》 《서원가고(書院可攷)》에 도내유림들의 건의로 건립되었음이 기록되어 있으나, 서봉령(徐鳳齡)이 1669년(현종 10)에 지은 《봉산서원실기》에는 1650년(효종 1) 창건된 것으로 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추측컨대 1590년에는 사당이, 1650년에는 강당이 추가되어 서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남에 따라 건물이 퇴락하자 1666년(현종 7) 봉산(蓬山) 밑 부자송(父子松, 휴암의 손자 효민(孝民)이 남평현감으로 부임해서 심었다는 소나무)

이 있는 곳으로 이건 계획을 세웠다. 이때의 이건은 중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서봉령은 이때 서원의 부지를 세 번이나 바꾸고서야 묘우(廟宇)를 완성하였다고 《봉산서원실기》에서 밝히고 있다. 당시 남평현감은 송시결(宋時杰)이었는데 송시열의 후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해에 유생 최상호(崔尙虎)가 소두(疏頭)가 되어 청액상소를 올렸고, 예조판서 박세모(朴世模)가 회계(回啓)하고 우승지 송시철(宋時喆)이 사액을 재청하여 <蓬山 봉산>이라 사액받았다. 실제 사액은 이듬해인 1667년(현종 8)에 이루어졌고 예관으로는 예조정랑 이부(李搏)가 파견되었다.

한편 송시열은 백인걸의 학덕을 흠모하여 그를 진유(眞儒)라 칭하였으며 청액소를 직접 지었을 뿐만 아니라 사액이 내려지기까지 많은 후원을 하였고 사액 후에도 전라감사 홍처후(洪處厚)에게 봉산서원에 대한 지원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사액된 이후 봉산서원의 사정은 더 이상 밝혀지지 않으나 다른 서원들과 마찬가지로 1868년 훼철(1871년 훼철이라고도 함)되었다.

1972년 백중운의 주도로 신실만 복설되었다가 1984년 백주원 나주군수의 주력으로 백씨문중에서 건립위원회를 조직하여 1차 공사를 시작하였고 1994년 <휴암백인걸선생유적비>를 세웠다.

## ■ 배향인물

### 1)주벽-백인걸(白仁傑, 1497~1579)

조선 중기의 학자·문신. 본관은 수원(水原). 자는 사위(士偉), 호는 휴암(休菴). 서울에 거주하였다.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효삼(效參)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참교(參校) 사수(思粹)이고, 아버지는 왕자사부(王子師傅) 익견(益堅)이다. 어머니는 사직(司直) 우중은(禹從殷)의 딸이다.

조광조(趙光祖)의 문인으로 김안국(金安國)에게서도 학문을 배웠다. 송인수(宋麟壽)·유희춘(柳希春)·이이(李珣)·성혼(成渾) 등 당대 사림계 인물들과 널리 교류하였다. 김식(金滉)이 대사성이 되어 새로운 학풍이 일어나게 되자 구도(求道)의 뜻을 세워 학문에 전심하였다. 특히 조광조를 존경해 그의 집 옆에 집을 짓고 사사하였다.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비분강개해 금강산에 들어갔다가 돌아와 1531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537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러나 기묘사림의 일원으로 지목되어 오랫동안 성균관에 머물다가 이듬해에 예문관검열이 되었다. 이 때 예문관 관리가 이조(吏曹)의 인사 행정의 잘잘못을 기록하던 옛 관습을 복구해 실행하였다. 예조좌랑을 거쳐 남평현감(南平縣監)이 되었는데 이 때 학당(學堂)을 세우고 학장(學長)을 두어 자제들의 교육에 힘쓴 공로로 품계가 높아졌다. 1541년에는 홍문록(弘文錄 : 홍문관의 수찬·교리 등을 선발하기 위한 제1차 추천 기록)에 올랐다. 1545년(인종 1) 지평을 거쳐 호조정랑이 되었으며,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

官)을 겸하였다. 같은 해 명종 즉위 뒤 윤원형(尹元衡) 등이 대비인 문정왕후(文定王后)를 등에 업고 을사사화를 일으켜 윤임(尹任)·유관(柳灌) 등을 제거할 때,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으로 있으면서 극력 반대하다가 파직되고 옥에 갇혔으나 정순붕(鄭順朋)·최보한(崔輔漢) 등의 도움을 받고 풀려났다. 그 뒤 1547년 문정왕후의 수렴청정과 이기(李芑) 등의 농권을 비난하는 양재(良才)의 벽서를 기화로 소윤(小尹) 세력이 대윤(大尹)의 잔존 세력과 사림계 인물들을 재차 축출할 때 연루, 안변(安邊)에 유배당하였다. 1551년 사면되어 고향에 돌아간 뒤, 《태극도설 太極圖說》과 정주학(程朱學)의 서적들을 깊이 연구하였다. 1565년(명종 20) 윤원형이 몰락하자 승문원 교리(承文院校理)로 등용, 이듬해 사도시첨정(司禦寺僉正)·선공감부정(繕工監副正)을 지냈다. 1567년 양주목사가 되었을 때 공납의 폐단을 개혁하는 치적 등을 쌓아 고을 사람들이 기념비를 세웠다. 선조가 즉위한 뒤 1568년(선조 1) 기대승(奇大升)의 건의로 특별히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공조참의·대사헌을 역임하고 뒤에 병조참판이 되었다. 이 밖에 공조참판 등을 지냈다. 그리고 1568년에는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수렴청정에 반대하는 소를 올려 오래지 않아 철렴(撤廉 : 수렴청정을 그만둬)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망할 때까지 조광조를 문묘에 배향할 것을 여러 번 요청하였다. 그러나 선조가 아버지 덕흥군(德興君)을 추존하는 작업을 추진할 때 일반 신하들의 강력한 반대와는 달리 임금의 처지를 두둔해 사림의 탄핵을 받고 지방으로 내려갔다. 조정에 분당의 조짐이 나타나자 이준경(李浚慶)의 의견을 좇아 당론을 잠재우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선비들을 해하려 한다는 사림의 의심을 받아 1571년 파주로 퇴거하였다. 그 뒤 우참찬으로 징소되었으나 치도(治道)를 논하는 소를 올리고 나아가지 않았다.

1579년에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있으면서 이이(李珥)와 함께 다시 동서분당의 폐단을 논하고 진정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서인(西人)을 편든다는 공격을 받았다. 그 밖에도 국경의 상황을 논하고 군비를 닦을 것을 주장하는 등 국정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로 《명종실록》의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선조 초에는 많은 정치적 문제에 연관되었고 매우 연만해 많은 시간을 파주에 퇴거해 있었다. 이에 선조는 대사헌·우참찬 등의 관직을 내려 부르거나 식량을 내리기도 하고, 1569년의 경우와 같이 직접 편지를 보내 부르는 파격적인 대우를 베풀기도 하였다. 나이가 든 뒤에도 성리학에 대한 탐구를 열심히 했으며 이이·성혼(成渾) 등과 더불어 학문을 익히고 토론하였다. 기묘사화 뒤 명종 때까지 계속되는 훈구세력의 발호에 맞서 사림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특히 1545년 을사사화 때 일신을 돌보지 않고 윤원형의 음모에 대항한 것은 후대에 길이 칭송되었다.

선조 때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으며 청백리에 뽑혔다. 파주의 파산서원(坡山書

院)과 남평(南平)의 봉산서원(蓬山書院) 등에 제향 되었다. 저서로 《휴암집 休菴集》이 전한다. 인조 때 충숙(忠肅)의 시호를 받았으나, 뒤에 문경(文敬)으로 고쳐졌다.

## ■ 건축물

현재 봉산서원은 앞에 지식강(드들강)이 바라다 보이고 뒤쪽으로는 소나무와 대숲이 둘러싸여 좋은 경관을 취하고 있다. 건물로는 1983년에 새로 증건한 사당과 내삼문만이 있을 뿐 강당과 기타 건물은 없다. 사당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집이다.

## ■ 중요물건

관련유적으로는 <봉산서원유허비> <선정비>가 서원 옆에 있고, 백인걸과 직접 관련되는 유적들은 대부분 경기도 파주와 양주에 있다.(파산서원, 용주서원, 묘소, 신도비 등) 한편 백인걸과 봉산서원에 관련된 문헌자료는 《휴암선생실기》(휴암기념사업회 간, 1981년) 1책에 수록되어 있다.

참고-나주시지1, 2006